

# 도쿄올림픽 男축구 16개국 확정

멕시코·온두라스 막차  
조 추첨은 내달 21일

한국 여자 대표팀  
사상 첫 본선 무대에

도쿄올림픽 남자축구에 참가하는 16개국이 모두 확정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9일(한국시간) "멕시코와 온두라스가 북중미카리브해지역에 걸린

올림픽 티켓 두 장의 주인공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멕시코는 캐나다를 2-0으로 이겼고, 온두라스는 미국을 2-1로 잡았다. 이로써 올림픽 본선에 참가하는 16개국이 결정됐다. 도쿄올림픽 축구 종목에서 남자는 16개국이, 여자는 12개국이 참가한다. 개최국 일본을 포함해 프랑스, 독일, 튀니지, 스페인(이상 유럽), 브라질, 아르헨티나(이상 남미), 한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이상 아시아),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공화국(이상 아프리카), 뉴질랜드(오세아니아), 멕시코, 온두라스(북중미) 등이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올림픽대표

팀은 앞서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통산 11번째다. 폴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올림픽대표팀은 다음 달 8일과 13일 중국과의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를 앞두고 있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사상 첫 올림픽 본선 무대에 도전한다. 올림픽 여자 축구는 개최국 일본을 포함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브라질, 잠비아가 출전권을 획득한 상태다. 올림픽 조추첨은 오는 4월21일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FIFA 본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뉴시스



최근 경남 고성에서 열린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중고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전북제일고가 결승에 진출, 청주공고를 접전 끝에 30대 26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 혼연일체로 '투혼' 발휘

전북제일고, 전국중고핸드볼선수권 '우승'

전북제일고등학교가 전국중고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29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경남 고성에서 열린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중고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전북제일고가 결승에 진출, 청주공고를 접전 끝에 30대 26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우승의 경우, 3학년 선수들이

대거 졸업하면서 1·2학년 선수들을 주축으로 이룬 쾌거다. 전북제일고 핸드볼 박종하 감독은 "우승을 목표로 출전하지 않았는데 모든 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돼 투혼을 발휘했다"며 "모든 영광을 선수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도쿄올림픽 출전권 위해 노력할 것"

박인비, 올림픽 2연패 포부

'골프여제' 박인비(33)가 올림픽 2연패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박인비는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버드의 아비아라 골프클럽(파72)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IA 클래식에서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2월 호주여자오픈 이후 약 13개월 만에 정상에 섰다. KLPGA 투어 통산 21승을 올린 박인비는 한국인 최다승 기록 보유자 박세리(25승)에 더욱 근접했다.

올해 첫 대회에 나와 우승을 거둔 박인비는 도쿄올림픽 출전을 꿈꾸고 있다. 2016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박인비는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한다. 박인비는 "시즌 첫 대회를 우승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쁘고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시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쿄올림픽 출전에 대해 "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만약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가 생긴다면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뉴시스

## 양현종, 빅리그 입성 이룰까?

30일 밀워키전 '마지막 시험대'

빅리그 개막 로스터 진입을 노리는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다. 양현종은 30일 오전 9시 5분(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리는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에 등판한다. 텍사스 구단이 29일 게임노트를 통해 공개한 30일 등판 예정 투수 명단에 따르면 양현종은 조던 라일스, 존 킹에 이어 세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다. 초창 선수 신분으로 텍사스의 MLB 스프링캠프에 참가 중인 양현종에게 빅리그 입성을 위한 마지막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투수로 활약하던 양현종은 메이저리거의 꿈을 이루고자 에이스로서 위상도, 높은 연봉도 포기한 채 스프링캠프 계약(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소속에 따라 조건이 다른 계약)을 맺었다.

도전자의 입장에서 시즌을 준비한 양현종은 시범경기에 4차례 등판해 9%이닝을 던지면서 11피안타(1홈런) 4실점, 평균자책점 3.86으로 준수한 활약을 선보였다. 삼진 10개를 잡았고, 4사구를 하나도 내주지 않으며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다. 텍사스는 30일부터는 홈구장 글로브라이프필드로 이동해 4월 2일 개막하는 정규시즌을 준비한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아직 26명의 개막 로스터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 현지 언론들은 텍사스가 개막 로스터 26명 가운데 25명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텍사스가 투수 13명과 야수 13명으로 개막 로스터를 꾸리면 양현종은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해야 한다. 투수 14명, 야수 12명으로 개막 로스터를 구성할 경우에는 빅리그 입성 가능성이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 경우 양현종과 헨터 우드, 루이스 요리스 중 한 명이 남은 한 자리를 차지



할 것으로 전망한다. 양현종은 메이저리그 승급 시 130만 달러를 받고, 인센티브 55만 달러 등 최대 185만 달러(한화 약 21억원)를 수령한다. 처음으로 서는 홈구장 마운드에서 양현종이 호투를 펼치면 빅리그 로스터 진입에 청신호를 켤 수 있다. /뉴시스

## 프로축구연맹, K리그 아카데미 마케팅 과정 성료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2021년도 제1차 K리그 아카데미-마케팅 과정'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주요 주제로 한 이번 교육에는 K리그 22개 구단 마케팅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 첫날에는 빅데이터 전문기업 '와이드코어'의 신도용 대표가 ▲빅데이터의 등장 배경과 현황 ▲다양한 산업 분야별 활용 사례들을 통한 빅데이터의 실무적 이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마케팅 믹스 개념 파악 및 전략 수립 등에 관하여 설명했다. 28일에는 마케팅 컨설팅 전문회사 '메타벨류'의 이상종 대표가 '빅데이터 시대의 마케팅, 소셜미디어의 융합'과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 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인터넷 환경에서의 빅데이터 수집과 관리 ▲빅데이터 관점에서의 마케팅 기획 ▲빅데이터 분석으로 솔루션 정보 파악 방법 등을 다뤘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K리그2 부천FC 홍보마케팅팀 손병찬 대리는 "마케팅 업무 담당자로서 우리의 고객과 팬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

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맞춰 관련 강의 준비해 좋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연맹은 지난 2013년부터 K리그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분야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K리그 아카데미' 사업을 지속 시행해오고 있다. /뉴시스

## 프로농구 시상식, 내달 7일 개최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시상식이 4월 7일 오후 4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내와 외국 최우수선수(MVP), 신인선수상, 최우수 수비상, 식스맨상, 기량 발전상, 이성구 페어플레이상, 감독상, 베스트5, 수비 5결상, 인기상, PLAY OF THE SEASON, 심판상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시상식은 SPOTV 2와 KBL TV에서 생중계한다. /뉴시스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